

대학생, 대선주자에게 묻다 1편

안희정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한 대통령”

유승민 “경제와 안보에 준비된 대통령”

서언회 기자간담회

기호웅 기자 kihodori@khu.ac.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황교안 총리가 5월 9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면서 대선은 현실이 됐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신문사는 26개 대학신문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와 함께 현재 거론되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질문은 대학생과 관련되거나 대학생이 궁금해할만한 소재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대학, 여성성소수자, 국방외교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번 지면에서는 최근 진행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간담회는 따로 진행됐으며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데 구성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와 다른 후보 또는 역대 대통령과의 차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안) : 직업 정치인의 꿈은 자연스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박정희 리더십의 낡은 운영 체제 정치를 세대교체하고, 적폐를 청산해 혁신을 이루고자 시대적 사명을 띠고 출마했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본인은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자치분권체제로 이행시킬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유) :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본인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누구보다 해당사항에 대해 준비돼 있다. 보수 정당에 속해 있지만 경제정책은 기존 보수의 것과는 다르다. 진보든 보수든 옳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안보에서 강력한 원칙론자이다. 또한 지난 8년간 국방위 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왔다.

본인은 직접 판단하고 느낀 것으로 이야기 한다. 국정의 핵심조차 모르면서 아바타같이 일하는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르다.

Q. 사상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 침체로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안 :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는 가지고 싶은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양극화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해 일자리 임금의 수준을 균등화시켜야 한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으면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이 독점하고 있는 패권적 권력질서를 깨야 한다.

유 : 현재 청년들은 너무나도 큰 실패위험 때문에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창업에 도전할 젊은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 임금 격차 해소 등 근본적 대책 뿐 아니라 비정규직 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안전하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원정이 지게 할 것이다.

Q. 지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훈련만 키웠다는 평가가 있다.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안 : 출산과 육아는 중요하지만 각 가정이 떠맡기는 어렵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된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신장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 :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의 소관이어야 한다. 각 부처 산하에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어 여성에 관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 조사 결과 육아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부여받은 공무원·교사의 합계출산율은



는 줄어들고 있으며 상당수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등 재정적 문제까지 겹쳐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학이 자립하기 힘든 구조다. 지방의 거점대학이 젊은 인재를 배출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각 지에 난립한 대학을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이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세울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우수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생태계를 이룰 것이다.

Q. 페미니즘이 사회적인 이슈다. 후보가 생각하는 여성 정책과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안 : 출산과 육아는 중요하지만 각 가정이 떠맡기는 어렵다. 특히 육아 과정에서 여성은 경력이 단절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된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 보장을 신장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 : 여성가족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성 정책은 모든 부처의 소관이어야 한다. 각 부처 산하에 제대로 된 부서를 만들어 여성에 관한 일들을 다뤄야 한다. 조사 결과 육아 휴직 기간으로 3년을 부여받은 공무원·교사의 합계출산율은

후보 약력		
안희정	입학금	유승민
고려대 철학 학사	학력	서울대 경제학 학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형으로 면제	병역	육군병장 만기 전역
무교	종교	불교
36,37대 충남도지사	경력	17,18,19,20대 국회의원

1.4명이라고 한다. 비공무원은 이보다 낮은 1.2명이다. 현재 1년인 민간 기업의 육아 휴직 연한을 공무원·교사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는 마땅히 육아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은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이다.

Q. 현재의 군복무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안 : 사병 급여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 국회 차원의 국가재정혁신위원회를 두어 자세히 논의하겠다.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약속 할 수 없다. 다른 후보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대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무기나 관련 예산을 고려했을 때 엄두가 나지 않는 이야기다.

본인은 병역문화의 비민주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 부에 의해 결정되는 군 입대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시작전

권을 전환시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 이전 정부부터 군복무 단축이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입대 대상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에 무턱대고 복무기간을 12개월, 10개월로 줄이자는 건 국방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얘기다.

모병제도 논의단계가 아니다. 모병제의 사례로 미국이 거론되곤하는데, 미국은 법적으로는 모병제의 형태이나 경제적으로는 징병제에 가깝다. 사병으로 입대하는 인구의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가 퇴색되고 최소한의 평등도 사라진다. 또한 모병제를 시행에 따라 치솟을 사병 봉급은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사회정의와 국가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못한 주장들이다.

Q. 현 시국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후보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안 :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를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의관을 바탕으로 강자를 규율하고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유 : 새로운 보수는 안보를 지켜야 하고, 사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며, 헌법을 지켜야 한다. 지킬 걸 지키는 보수는 사랑받는다. 전 박근혜 정권과 소위 친박 세력은 가짜 보수다. 구분되는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017 1인멘토 평생멘토링 모집안내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학생을 위한 1인멘토 평생멘토링을 아래와 같이 시 행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7.3.30.(목)까지

2. 신청자격: 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 소속 자학생

3. 신청방법: 신청서이메일 제출(aeek.khu.ac.kr 공지사항 참조)

4. 활동기간: 2017.4.~2017.11.(8개월)

5. 활동내용

-교과목 학습법, 리더십 및 대인관계기술, 취업을 위한 선배들 현장 조언

6. 매칭

-재학생 1,2학년(멘토)+전공 3,4학년(멘토)

-재학생 3,4학년(멘토)+산업체 동문 선배(멘토)

7. 지원 및 혜택

-우수활동 팀 선정 및 시상(상장, 상금)

-재학생 멘토는 사회봉사 학점 인정

-최종 수료자 수료증 수여

8.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ee@khu.ac.kr

3월 넷째 주(3.20 ~ 3.2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롯데 채용설명회	3.22(수) 16:00~18:00	청운관 B117호	
롯데 채용면담	3.22(수)~23(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자기 PR 성공비법(1) - 이미지 매이킹 (문재영 교수)	3.20(월) 14:00~16:00	청운관 619호	
합격하는 저소서 작성법(배상복 교수)	3.22(수) 13:00~15:00	청운관 619호	
공간지각력 핵심 및 문제풀이(안진선 교수)	3.24(금) 15:00~17:00	청운관 502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자신신청 필요(행사일자기능)

종합정보시스템 - 원내신청 - 연수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료

* 신청 후 별도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시장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쪽에 비치함.

• 출석 협조전달일: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별도로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가이드 참조

2.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본교 학부 체재생, 출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 및 이력서 작성법 등, 면접스킬지도, 기업 및 직무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유형

일 시	담당 컨설턴트	장 소	신청방법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오비스홀 355호 제2법학관 107-2호 청운관 6층 상담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상적/상담」 신청
• 상당 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감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에 우편) 상당 전·후각(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상당일 취소불가(상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연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주 쓰출력하여 지침(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obj.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obj@khu.ac.kr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동문멘토와 함께 하는 취업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일정	장소	멘토명	주요내용	멘토주요이력
3/22(수) 19:00~21:00	정내	전		